논어 3편 팔일 20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《關雎》，樂而不淫，哀而不傷。」

독음 · 자왈 관저 락이불음 애이불상

쉬운 풀이(요약) · 관저의 즐거움은 지나치지 않고 슬픔은 자신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關 빗장 관 관 / 雎 저구 저 저

樂 즐길 락 / 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淫 방탕할 음 음

哀 슬플 애 애 / 傷 상처 상 상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